

감사하게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도 남국의 저녁노을을
바라보며 감사의 뜻에 감사드리고자 저희들
작은 마음들을 한군데 모았습니다

한여름 어느날 북풍 마음으로 드림에 오르고 하얀을 알리자
가운을 챙겨 입고 서툰 걸음으로 시작한 저희들이 어느덧
성탄과 신정을 잘 보내었습니다

비록 고국의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는
저희들의 청각의 습성이었기에 기억속에 남으며 잘
지냈나 봅니다. 즐거움에 그러면서도 진심은 쓸쓸하게
말입니다. 더구나 감사하게서 정성스레 보내주신 맛있는
선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먹으며 오랫동안에 고향의 그
맛들을 nostalgically 느낄수 있었습니다

기쁨이야 이리 말삼드릴수 없지만 멀리 있다는 그 이유
에서인지 그래서 눈물이 나올지경으로 가슴들을 조아리며
작은 저희들에게까지 소중한 이름으로 호명 하곤 하신
감사의 그 너그러우신 마음에 대신 글로써나마
저은 사랑들을 쏟아부었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손길과 미소가 이곳에 닿아 개뿔함을
가르치고 아픈이들 모두에게 차분하고 부드러운 능력으로
눈살핌을 주면서 그러한 품성함을 고국의 모습에서
부터 알찌기 몸매 배어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람과 하늘과 물이 모두 싱그럽고 거리에 지나는
사람들과 시간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 넉넉한 저희
소녀의 고향 말입니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겪는 손실과 간난과
손실의 어려움도 있지만 역시 화목과
단란으로 서로를 따스하게 하도록 노력
하면서 의지함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인내하시고. 검약하시고. 수고하시고
그나머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자세를 닮아
저희들도 남은기간동안 저희들 본연의 그 자식
부끄럼이 바래지 않도록 잘 지내려합니다

희곡편이 내려대는 멋진 겨울은 벌써 없지만
후후함이 그로운 저희들이 서로를 손목잡히며
잔은글로써 다시금 숙연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제국의 날들과함께 국가의 평화로운 번영에 그 노고를
기원합니다

78년. 1월. 20일

Central Hospital, Riyadh
Saudi Arabia

한글 간호원 이종도 드림.